

사회

‘정수기 뇌물 의혹’ 교육청 간부 자살

업자 “뇌물 돌려달라” 내용증명 보내 ... “억울하다” 유서 남기고 투신

경찰, 학교 4곳 수사 ... 교육계 파장

교육계 관련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50대 교육청 간부가 투신 자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교가 중·고교 등 최소 4곳에, 오간 금액이 4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 수사가 확대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남포동에 연루된 학교 행정실장이 자살한 이후 5년 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4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K아파트 102동 앞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이자 전 광주 A고교 행정실장을

자살한 김모(56)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집안 식탁에서는 용지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번 정수기 사건에 대해 내 양심을 결코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지만, 재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이날 A고교 행정실장 재직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둔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6개월간 A

고교 행정실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정수기 설치업자 이모(68)씨로부터 교내에 정수기를 설치해주는 대가로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남 경찰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던 김씨는 이날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씨와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대질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낀 데다 교육공무원으로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부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서부경찰은 이씨가 김씨들에게 “내가 준 돈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

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A고교 등 4곳의 중·고교에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 수사하던 중이었다. 남포동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북구 소재 고교 2곳과 서구 소재 중학교 2곳에 분기별로 100만~2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는 자신이 설치한 정수기가 최근 위생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건넨 돈이 정수기 설치 등의 대가로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씨를 소환해 한차례 조사를 벌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여고 정구팀 감독·코치 학부모와 싸고 승부조작”

가족들, 선수 실업팀 계약금 빼들린 의혹 제기

광주의 한 여고의 정구팀 감독과 코치가 선수들의 실업팀 계약금 중 일부를 빼돌리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체육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4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광주 D여고 정구부' 감독과 코치가 대회 상급과 계약금 일부를 유용하고 승부 조작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D여고 정구부 선수 학생 일동 및 학부모 이름으로 된 진정서에는 A감독과 B코치가 상급과 실업팀 진출에 따른 계약금 일부를 부당하게 빼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열린 전국 정구대회에서 특정 선수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B코치가 학부모와 싸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B코치는 “발전기금과 수고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이 계약금

일부를 보내온 적은 있지만, 진정서에 언급된 계약금 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돈을 챙긴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B코치는 또 “진학과 취업 문제로 고학년 위주로 경기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 저학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승부조작을 한 적은 없다”며 “교육청과 체육회의 진상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명확히 밝혀겠다”고 말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B코치가 교육청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과 협의해 진정서 내용의 진위를 밝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5일 학부모와 A감독, B코치 등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나원침 (8253) 김종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설명회 광주시 북구가 24일 대회의실에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영유아 부모 300여명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각종 보충 식품에 대한 이용 및 영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시·도의원 7명 직위상실형

순천지원, 오현섭 전 시장 비리 연루 징역·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여수지역 시·도의원 7명이 무더기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전·현직 여수시의원 등 2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현직 시·도의원 7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들 의원에 대해 최하 벌금 150만원에서 최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의원은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이성수, 황치중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근, 정빈근, 상석석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지원 및 시정 협조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선거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시장의 지시를 받고 시·도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송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

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의원은 수회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의 측근들로부터 오 전 시장에 대한 6·2 지방선거 지원과 각종 시정 협조 등의 명목으로 각각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총 재직의원 26명 가운데 4명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파행과 대규모 보궐선거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감자탕 프랜차이즈 업체들 대장균 검출 양념양통 적발

대장균이 검출된 다진양념을 전국 가맹점에 유통시킨 감자탕 프랜차이즈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대장균이 검출된 감자탕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바뎀, ㈜행복추풍령, 지유비바이㈜와 무신오 식품제조공장에서 양념을 만들어 유통한 나로삼푸드와 제이엔엠퍼드 등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광주 15곳, 전남 7곳, 전북 11곳에 가맹점이 있는 ㈜이바뎀은 지난 해 8월부터 최근까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업소에서 구입한 다진생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북부경찰 파격 인사

연공서열 파괴 ... 형사과·수사과 팀장 8명 교체

광주북부경찰이 최근 연공서열과 조직 안정을 우선시한 기존 인사 관행에서 완전 탈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북부경찰은 정기인사시 평균 2명 정도의 팀장을 교체해왔으나 연공서열을 형사과·수사과 소속의 팀장 8명을 물갈이 했다.

앞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위급 이상 형사·수사과 팀장은 1년 만에 무조건 교체하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북부경찰은 최근 형사과(12개)·수사과(5개) 경위급 팀장 17개 보직에 대한 직위 공모를 실시한 뒤, 승진 인사 1명을 포함한 8개 보직의 팀장 자리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사에서 한 번에 팀장 8명의 보직을 바꾼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경위에 임용된 지 1년 이상 된 경찰관이면 누구나 직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사 요인 수에 따라 공모자 수가 결정된 것과는 달리 이번 공모에서는 형사과 18명·수사과 6명 등 모두 24명이 신청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팀장 공모는 연공서열에 따라 이뤄지거나 정년퇴임 등 인사 요인이 없으면 현 팀장이 연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일 계급이면 누구나 공모에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팀장은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틀을 적용했다.

북부경찰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부하직원들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는 팀장은 살아남지 못한다”면서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능력 위주의 인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가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제주 해상서 추락 헬기 이유진 순경 시신 발견

지난 23일 제주 해상에서 실종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 소속 AW-139 헬기 탑승자인 이유진 순경의 시신과 헬기 잔해들이 발견됐다.

24일 오전 9시10분께 제주도 한림읍 서쪽 105km 해상에서 수색작업에 나선 제주해양경찰청이 이 순경의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은 앞서 오전 8시10분께 제주도 한림읍 서쪽 116km 해상

에서 AW-139 헬기 잔해들을 발견했다. 발견된 잔해들은 AW-139 헬기의 꼬리와 문짝 등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헬기 기장 이병훈(40) 경위 등 나머지 4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경청 헬린저 항공기 1대와 경비함정 8척, 해군 함정 2척 등을 동원, 시신과 헬기 잔해가 발견된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추락 헬기는 지난 23일 오후 8시20분께 제주도 한림면 서쪽 74km 지점에 있던 제주해경 '1502함'에서 응급환자인 이 순경을 태우고 제주공항으로 되돌아오던 중 통신이 두절됐다. /연희뉴스

군민장학재단 기금조성 의혹 강진군청 압수수색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군민장학재단 기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강진군청의 회계팀·교육발전팀 등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강진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장학금 관리대장·장학금 지급서류·장학금 인출금 내역서·기부금 영수증·입찰 시공서류(14개 건설업체) 등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군이 장학금을 조성하면서 14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대가로 공사 입찰 당시 특혜를 줬는지 여부와 장학금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주홍 군수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강진군민 장학재단은 2005년 4월 8일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설립됐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식품품 훔쳐 배 채운 가솔 고교생들

○...생활비가 떨어지지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식품품을 훔쳐 배를 채운 가솔 청소년들이 줄줄이 경찰서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2년 재모(17)군 등 3명은 지난달 19일 새벽 3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양주 2병과 햄, 라면 등 10만원 상당의 식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초 함께 집을 나와 광천터미널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배는 고프는데 돈 없어서 먹을 것을 훔치게 됐다”고 진술.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림축산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1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특강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식품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역, 국어, 행정, 행정, 국어, 헌법, 공직, 교정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검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1시간)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